

코카콜라 5억불 투자, 생산라인 신설

코카콜라 버틀링 인도네시아(Coca-Cola Bottling Indonesia, CBI)가 인도네시아에 총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서부자바 브카시 공장에 생산라인 2개를 신설해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미국 기업 코카콜라(Coca-Cola Company)는 호주에 코카콜라 아마틸(Coca-Cola Amatil)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코카콜라 아마틸은 인도네시아 자회사로 코카콜라 아마틸 인도네시아를 두고 있고, 코카콜라 아마틸 인도네시아는 코카콜라 버틀링 인도네시아와 코카콜라 디스트리뷰션 인도네시아(CDI) 등 두 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

모기업인 코카콜라는 지난해 10월에 인도네시아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카콜라 아마틸 인도네시아의 까디르 쿤두즈 대표는 올해 찌끄도칸에 생산라인을 추가할 것이라며, 생산라인 3개를 신설하면 연간 음료 생산량이 2억5천만 리터 늘어난다고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카콜라는 생산라인 5개를 신설 중이고 조만간 완공될 것이라고 까디르 대표가 덧붙였다.

코카콜라는 찌끄도칸 공장과 수마트라, 자바, 발리 등에 있는 공장 8개를 확장하고, 동시에 창고와 생산시설과 관련된 인프라도 개선할 계획이다. 코카콜라 측은 향후 3년 간 생산시설 확장을 마치면 7만5천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현재 코카콜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은 1만2천 명이 고,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한 인원은 4만8천 명 가량 된다.

□ 시사점

- 글로벌 식음료 기업인 코카콜라는 1932년 이후 약 8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 내 현지에 10개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여 대표상품인 코카콜라 뿐 아니라 판타,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프레쉬티, 파워에이드, 아데스 등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유통경로에 있어서도 직판(Direct Distribution)을 통한 전통적인 유통경로 뿐 아니라 하이퍼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현대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 글로벌 식음료 기업이 현지 생산을 통해 인도네시아 식음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09년부터 '13년까지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음료시장 성장률은 13.1%로 높아 인니 음료시장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투자확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